

평양의 특이한 가로수풍경 (2)

보통강변에 휘날어진 베드나무풍경

예로부터 평양은 베드나무가 우거진 곳이라고 하여 류경이라고 불려왔다. 풍치수려한 보통강변에 가면 수양버들 휘날어진 풍경을 볼 수 있다.

베드나무아래를 거닐며 느끼는 정서는 참으로 매력적이다. 이런 풍치가 있어 못새들도 다투어 날아와 깃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삼정읍 비록한 현대적인 봉사지대 등이 한눈에 안겨 온다. 베드나무는 빨리 자라고 물기에 견디는 성질이 강하므로 강기슭과 개울기슭에 보호숲으로 심으며 가로수로도 심고있다.

무는 여러가지 목재와 종이 원료로 쓰이며 속껍질과 꽃은 사람들의 건강에 유익한 약을 제조하는데 이용된다. 새기와 새기를 이어오며 평양의 자랑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베드나무에는 잊지 못할 사연이 깃들여있다.

고 하시며 가로수로 베드나무를 심게 하여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높은 뜻에 의하여 평양에는 민족성질은 《베드나무거리》라는 거리가 름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날의 뜻깊은 사연을 전하며 평양의 베드나무들은 푸르려 설레이고있다.



삼복철 누구나 찾는 단고기장

무더운 삼복철에 사람들이 먼저 찾는 음식은 무엇일까? 시원한 냉면?... 물론 그것도 옳다.

하지만 삼복철에는 뽕니뽕니해도 땀을 철철 흘리며 먹는 뜨끈한 단고기장이상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단고기장은 평양단고기집과 신홍단고기집, 대동강구역종합식당 문흥단고기집, 함경북도 경성군의 경성단고기집을 비롯하여 민족의 향취넘치는 단고기장과 갖가지 단고기료를 잘 만들어 널리 알려진 단고기전문식당들이 많다.

삼복철인 요즘 단고기료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은 찾아오는 사람들로 련일 흥성이고있다. 《동국세시기》에도 단고기국밥에 양념을 넣고 밥을 말아서 담뽕해 먹으면 더위를 물리치고 허약한 것을 보강할수 있어 삼복철의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기록되어있다.

단고기 100g에는 단백질 18.5g, 지방 4.1g, 칼슘 10mg이 들어있으며 닭, 돼지, 소, 오리고기에 비하여 비타민 A, B가 훨씬 많다. 또한 소화흡수가 잘되고 혈기를 왕성하게 하며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려 생기는 탈수현상과 빈혈 등을 예방하는데 좋은 것으로 하여 삼복철의 영양음식으로서는 그지그만으로 알려져있다.

이런데로부터 단고기장을 보신탕으로 일러왔으며 《오뉴월 단고기장물은 발등에 떨어져도 약이 된다.》는 속담도 나왔다. 공화국에는 평양단고기집과 신홍단고기집, 대동강구역종합식당 문흥단고기집, 함경북도 경성군의 경성단고기집을 비롯하여 민족의 향취넘치는 단고기장과 갖가지 단고기료를 잘 만들어 널리 알려진 단고기전문식당들이 많다.

삼복철인 요즘 단고기료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은 찾아오는 사람들로 련일 흥성이고있다. 《동국세시기》에도 단고기국밥에 양념을 넣고 밥을 말아서 담뽕해 먹으면 더위를 물리치고 허약한 것을 보강할수 있어 삼복철의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기록되어있다.

단고기 100g에는 단백질 18.5g, 지방 4.1g, 칼슘 10mg이 들어있으며 닭, 돼지, 소, 오리고기에 비하여 비타민 A, B가 훨씬 많다. 또한 소화흡수가 잘되고 혈기를 왕성하게 하며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려 생기는 탈수현상과 빈혈 등을 예방하는데 좋은 것으로 하여 삼복철의 영양음식으로서는 그지그만으로 알려져있다.

이런데로부터 단고기장을 보신탕으로 일러왔으며 《오뉴월 단고기장물은 발등에 떨어져도 약이 된다.》는 속담도 나왔다. 공화국에는 평양단고기집과 신홍단고기집, 대동강구역종합식당 문흥단고기집, 함경북도 경성군의 경성단고기집을 비롯하여 민족의 향취넘치는 단고기장과 갖가지 단고기료를 잘 만들어 널리 알려진 단고기전문식당들이 많다.



천연기념물 고성참대밭, 창터소나무무리

고성참대밭 고성참대는 삼일포의 뒤산기슭과 순화리 칠성고개기슭에 퍼져있다. 참대는 벼과에 속하는 한쌍 잎식물이며 꽃은 60~120년만에 한번씩 이삭꽃차례를 이루며 핀다.

참대는 벼과에 속하는 한쌍 잎식물이며 꽃은 60~120년만에 한번씩 이삭꽃차례를 이루며 핀다. 제일 큰 참대의 높이는 16m, 뿌리목둘레는 58cm, 가슴높이둘레는 55cm이며 나무갓너비는 1.8m이다.

이 소나무림은 단순림으로 되어있는데 크고 오래 자란 나무와 그밑에서 자라고있는 각이한 크기와 나이를 가진 소나무들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다. 제일 큰 나무의 높이는 30m이고 뿌리목둘레는 3.2m, 가슴높이둘레는 3m이며 나무갓너비는 13m이다.

고성일대의 자연미적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 이음이 희고 알레르기성이없을 습관이 있다. 사실 이러한 습관은 좋지 못하다. 차이에 들어있는 많은 량의 탄닌산이 단백질과 화합하여 수렴성을 가진 탄닌산단백을 합성하여 뱀의 몸통을 움츠게 하기때문이다.

고성일대의 자연미적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 이음이 희고 알레르기성이없을 습관이 있다. 사실 이러한 습관은 좋지 못하다. 차이에 들어있는 많은 량의 탄닌산이 단백질과 화합하여 수렴성을 가진 탄닌산단백을 합성하여 뱀의 몸통을 움츠게 하기때문이다.

고성일대의 자연미적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 이음이 희고 알레르기성이없을 습관이 있다. 사실 이러한 습관은 좋지 못하다. 차이에 들어있는 많은 량의 탄닌산이 단백질과 화합하여 수렴성을 가진 탄닌산단백을 합성하여 뱀의 몸통을 움츠게 하기때문이다.

노루친 몽둥이 3년 우리다 (4)

노루친 몽둥이 3년 우리다 (4) 글 리유근, 그림 채대성 정도령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척 하며 봉사가 물어놓는 눈무지쪽으로 슬금슬금 내려갔다. 《거기 좀 서시우!》 이제 더는 숨박꼭질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것을 알아차린 봉사는 황급히 그의 팔소매를 붙들었다. 《난 아까부터 당신이 다 보구 능청을 떠는걸 알았소.》

노루친 몽둥이 3년 우리다 (4) 글 리유근, 그림 채대성 정도령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척 하며 봉사가 물어놓는 눈무지쪽으로 슬금슬금 내려갔다. 《거기 좀 서시우!》 이제 더는 숨박꼭질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것을 알아차린 봉사는 황급히 그의 팔소매를 붙들었다. 《난 아까부터 당신이 다 보구 능청을 떠는걸 알았소.》

노루친 몽둥이 3년 우리다 (4) 글 리유근, 그림 채대성 정도령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척 하며 봉사가 물어놓는 눈무지쪽으로 슬금슬금 내려갔다. 《거기 좀 서시우!》 이제 더는 숨박꼭질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것을 알아차린 봉사는 황급히 그의 팔소매를 붙들었다. 《난 아까부터 당신이 다 보구 능청을 떠는걸 알았소.》

민족회화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동물화가 리암

리암은 16세기를 대표하는 재능있는 동물화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꽃과 새, 짐승을 잘 그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개와 고양이를 뛰어넘어 잘 그렸으므로 널리 알려져있다. 대표작인 작품으로는 《고양이와 강아지》, 《나무에 오른 고양이》, 《한쌍의 기러기》 등이 전해지고 있다. 《나무에 오른 고양이》는 《고양이와 강아지》와 쌍축을 이루고있는 그림이다. 성난 강아지에게 쫓긴 고양이는 재빠르게 나무위로 뛰어올라가고 고양이를 놓쳐버린 강아지는 더는 어찌지 못하고 고개를 가웃하고 앉아 나무위를 바라보고있다. 그 순간 나무가지에 앉아있던 참새들이 놀라서 날아오고 나무아래로는 새털을 입에 문 다른 한마리의 강아지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 어딘가를

가고있다. 세심한 관찰로 동물들의 습성과 동작을 깊이 파악하고 거기에 해학적인 내용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리암의 화풍을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당시의 동물화들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이다. 기본주제의 배경에 꽃나무와 바위, 대나무와 들꽃 등을 간결하고 선명하게 그려 넣어 장식적인 효과를 낸것도 리암의 동물화들에서 보게 되는 공통된 수법이다. 리암은 수목화를 많이 그려던 당시의 화풍과는 달리 민족적이며 향토감이 짙은 아름다운 채색화를 즐겨 그렸을뿐 아니라 화폭마다에 동심적이며 명랑하고 해학적인 분위기가 흘러넘치게 함으로써 당대의 화조령도도분야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동물화 《나무에 오른 고양이》 (리암 작)



숙달과 뜻 악하면 악한 꼴이 있고 착하면 착한 꼴이 있다. 악하고 착한데는 그 결과 차례짐을 이르는 말. 말 단 말에 장이 쓰다. 가정에 말이 많으면 살림이 잘 안된다든 뜻으로 이르는 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을 욕으로 이르는 말. 사위는 백년손이요, 며느리는 종신식구이다. 사위는 언제나 대하기 어렵고 남의 사람이지만 며느리는 곧 제 식구, 자기 집사람이 됨을 이르는 말.

세판을 다 지고서 한사람이 장기를 좋아하는 자기 친구에게 물었다. 《자네 오늘 그 친구와 장기를 몇판 두었나?》 《세판.》 《그대 몇판 이겼나?》 《그럼 세판을 다?...》 《첫판은 내가 이겨주지 않았고 두번째 판은 그가 저주 않았어. 그럼 세번째 판은 비기자고 했는데 그가 끝내 비겨주어야지?》 《그럼 세판을 다?...》

그는 단숨에 고개마루에 올라서 등리로 들어가는 길에 구까지 갔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거기에는 기둥에 시뻘건 주홍칠을 해세운 《효자정문》이 덩실하니 솟아있는게 아닌가. 그는 한참이나 여러둥 절하여 서있다가 인차 모든것을 깨닫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봉사가 3년을 고스란히 가짜 리묘살이를 하고 내려온 날 마을항임을 송씨가문이 대대로 조상에게 효도한 전적을 날같이 적어 고을원에게 알리고 원은 감사에게, 감사는 나라에 청하여 마침내 《효자정문》을 내리게 했던 것이다. 《허허허. 허허허.》 정도령은 정문 한복판에 높이 세불인 《효도 효》 자주자주매를 바라보며 한바탕 너털웃음을 내놓았다. 만약 삼강오륜을 제정할 공자가 다시 살아서 이 사실을 안다면 어찌 허허 웃음을 했을것이다. 《그러니 속히온 놈두 효자였다?》 정도령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정문을 통과할 때 누구나 말에서 내리게 되어있는 그 《효자정문》으로 빠졌이 하늘소를 란채 호기있게 들었다. 《글》